

# 최근 5년 수도권 기업 광주·전남 이전 급감

### 2011년 후 지방이전 기업수 매년 32%씩 줄어 이전 보조금 받은 기업 광주 1곳, 전남 30개사 정부 보조금 혜택 감소 수도권 규제 완화 영향

최근 5년간 광주·전남 등 지방이전을 추진한 수도권 기업 수가 매년 32.3%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투자 규모도 연평균 3324억6000만원씩 감소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 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 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수도권 기업은 193개로 총 2433억2560만원이 지급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 기업이 55곳으로 가장 많은 747억8580만원이 지급됐다. 충북 21개사에 316억7630만원, 전남 30개사에 279억 4890만원, 강원 27개사에 231억2727억원,

전북 8개사에 209억805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경우 2011년 1곳이 지방 이전에 따라 국비를 교부 받은 이후 8월 현재까지 단 1건도 이전기업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전남은 광주에 비해서는 많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집중됐으며 이후 2012년 7곳, 2013년 4곳, 2014년부터는 매년 1건씩으로 감소했다. 특히 한국전력과 농어업 관련 공기업 등이 나주로 이전한 이후에도 이전 수도권 기업 수가 늘지 않으면서 '비수도권 황폐화(경제 소외)'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도 급격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2011년에 832억5420만원이 지급된 이후 2012년 563억1100만원, 2013년 492억1160만원, 2014년 206억323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257억545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그러나 올해는 122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금액이 큰 입지보조금을 줄이고 비교적 적은 설비투자보조금으로 대체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2011년 이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0건의 이전 수요가 있었지만 이후 매년 평균 32.3%씩 줄어 지난해에는 4분의 1 수준인 17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 규제를 완화했으며 박근혜 정부도 최근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프리존 추진 계획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연평균 3324억6000만원씩 줄어 2011년 1조772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665억6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737억7300만원 수준으로 연말까지 1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비수도권으로 향할 기업의 투자기 수도권에 더욱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황폐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데 자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만 내놓는다니 이제는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유턴 현상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비수도권의 경제 공동화와 성장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규제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53.06 (-9.76)	금리 (국고채 3년) 1.30% (0.00)
↓ 코스닥 686.76 (-1.23)	↑ 환율 (USD) 1096.80원 (+0.30)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가전제품 할인 삼성전자 모델들이 28일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2개 품목의 가전 제품을 최초 판매가 기준 최대 53%까지 할인 판매한다. <삼성전자 제공>

## 광주·전남 산단공 '미니클러스터' 10년 결실 <산학연협의회>

### 12개 회원 783명 활동 기술이전·판로개척 등 최근 잇따른 성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철)는 지난 10여년동안 미니클러스터(산학연협의회·이하 MO)를 운영 제조업 혁신, 신기술 개발, 해외수출을 위한 판로개척, 기술이전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6월말 현재 기준 광주·전남 지역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783명의 회원이 12개의 MC를 구성해 활동 하고 있다. 특히 광주 산업단지 MC는 광통신부품, LED조명, 태양광 및 광학·환경·3D프린터 등을 다루는 광융합MC, 전기전자 업종으로 특화된 스마트전자MC, 자동차 및 금형을 다루는 자동차융합MC, 의료·바이오 헬스·미용을 다루는 의료부품소재MC로 이뤄졌다. 이들 MC는 매월 1회 정책 설명회, 과제발굴회의, 기술이전, 기술세미나, 광역 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또 5개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전략회의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지역 MC 회원

산단공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특허 등이 기업에게 전달되고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설명회와 기술애로발굴해결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이들은 R&D기술개발과제로 현장맞춤형기술개발 과제 9건, 이전기술사업화 1건 등 총 10건 15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R&D기술개발뿐만 아니라 R&BD 촉진과제 지원도 활발히 펼쳐 산업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 국내·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 등 매출 발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케팅 부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올해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6개 전시회, 21개사가 참가하였고 국내외 바이어를 통해서 82억 정도 금액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광통신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인 글로벌광통신(주) 등 7개 업체와 인도네시아 국영통신기업과 광통신 부품 1000만달러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특허 등이 기업에게 전달되고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설명회 시간을 늘려 가고 있다. 윤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개별기업들에게 산학연 클러스터라는 힘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단지에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국제선 항공권 91일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땐 출발 91일 전에만 취소하면 취소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이들 7개 항공사는 이전까지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운임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정해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90일 이내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취소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항공권이 출발일에 임박해 취소되면 그만큼 재판매가 어려워 사업자의 손해액이 커질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령 대한항공은 일반석 기준(특가 제외)으로 기존에는 운임에 따라 5만~15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운임·취소 시기별로 0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수수료가 차등화된다. 약관 시정 이후 취소수수료율은 0.5~29%의 분포를 보였으며 시정 전보다 0.1~15.9%포인트 낮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금호고속·도로공사 '돌발상황 알림서비스' 업무협약

금호고속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6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9층 금호고속 본사에서 대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전방의 고속도로 돌발상황을 알려주는 '돌발상황 즉시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돌발상황 즉시 알림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전방의 사고, 정체 등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고객들에게 스마트폰 및 차량 네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덕연 금호고속 대표이사는 "글로벌 코리아 선도 운송기업으로서, 안전과 편안함을 통해 금호고속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창사 70주년을 올해는 정업초심으로 고객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인터넷진흥원·NH농협은행 핀테크 서비스 공동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NH농협은행이 핀테크(정보기술 기반 금융업)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용 기업은 별도의 이용 계약 없이 NH농협은행의 금융 API를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과 NH농협은행은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에 보안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권 정보보호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SH BUILDING

시행 성희개발(주)    시행 한아종합건설(주)    설계·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우월한 입지**  
남구 빙고골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투자가치**  
산언이 확보해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미래가치**  
고속특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가

**고객가치**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문의 062) **676-4006**  
**010-5681-4015**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이스카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터너디자인이 잔 엔지니어와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시험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광주전남 (062) **511-0444**  
광양대리점 (061) 795-0485